당신의 한걸음,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

마주봄

2017 Vol.13
은평구자원봉사센터 소식지

자원봉사 이슈
2016. 자원봉사 원탁토론
청년이 청소년에게 들려주는 Job다한 이야기

자원봉사 네트워크
기업 자원봉사 | 수요처 관리자 역량강화교육

아름다운 사람들
2016. 자원봉사자의 날 | 우수 자원봉사자

바람 부는 날의 꿈

류시화

바람 부는 날
들에 나가 보아라.
풀들이 억센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것을 보아라.

풀들이 바람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아 주기 때문이다.

쓰러질 만하면
곁의 풀이 또 곁의 풀을,
넘어질 만하면
곁의 풀이 또 곁의 풀을
잡아주고 일으켜 주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으랴.
이것이다.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도.
바람 부는 날 들에 나가 보아라.
풀들이 왜 넘어지지 않고 사는가를 보아라.

마주봄 2017 vol.13
은평구자원봉사센터 소식지

Contents

SECTION 1 ACTION
04 V-은평
08 현장스케치1 - 주민 핸즈온

SECTION 2 CHANGE
12 자원봉사 이슈
16 V-은평 청소년
22 현장스케치2 - 청소년 자원봉사

SECTION 3 PEOPLE
25 자원봉사 네트워크
27 자원봉사교육
29 쉬어가는마당
30 은평의 사람들
34 수요처 뉴스

SECTION 4 INFORMATION
36 센터안내
40 자원봉사 Tip
44 아름다운 사람들
46 수요처 안내

V 은평구자원봉사센터 소식지 '마주봄'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지향하며 자원봉사자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은평구 **동아**리와 함께 **놀**면서 나누는 **자**원봉사

‘은동아 놀자’ 프로젝트

우리들만의 즐거움이 재능 나눔으로서 함께 누리는 즐거움이 된다면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동화로 아이들의 꿈을 함께 그리는 동화구연 모임, 커피가 좋아 모인 커피바리스타 모임, 지역에서 가치 실현의 일을 저질러 보고 싶은 청년모임 등등..
우리 지역에는 작고 큰 소소한 모임들이 많이 있다.
이들의 소모임이 그저 취미생활이나 친목 모임에 그치지 않고 마을 공동체라는 그물망 안에서 건강한 지역문화 만들기의 활동으로 기여 될 수 있도록 은평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2016년 ‘지역 소모임 활성화 사업’을 진행했다.

센터에서는 모두 두가지 방식을 통하여 지역 소모임 지원을 하였는데 첫째는 신규 소모임을 발굴하여 그들의 모임 활동이 자원봉사와 연계 될 수 있도록 돕는 ‘은동아 놀자’ 란 프로젝트 형식으로 두번째는 기존의 자원봉사 동아리 대상 우수프로그램 공모를 통하여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은동아 놀자’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평생학습관, 청년층 등의 중간지원조직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다양한 주민소모임을 발굴 지원하였다. 각 소모임 활동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원봉사로 꽃피어나도록 사전 자원봉사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가족, 자녀문제 상담), 사랑누리(어린이 독서상담 및 책놀이), 이야기보따리(어린이 인형극), 청청소리(청소년 진로멘토)의 활동 지원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연대뿐만 아니라 청년청과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캠프등 새로운 자원봉사 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졌다.

둘째, 봉사동아리 우수프로그램 공모를 통해서 우수한 단체를 발굴 육성하고 행정 컨설팅으로 지원함으로서 자원봉사 일상화로 지역사회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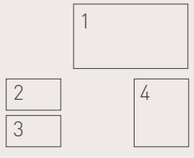
디아코이노
저소득 청소년 과학교실 및 어르신 사진 복원 봉사

구산동캠프
커피교육 나눔 활동을 통한 지역주민 소통 활성화

에이드뉴스
청소년 기획봉사 활동(벽화그리기, 캠페인 등)

갈현1동캠프
결혼이주여성 마을공동체 활동
(다문화장터 및 체험 교실)

은평구는 지역의 많은 모임 활동이 재능과 에너지를 주고 받는 상생의 변화를 자원봉사를 통해 이루어 가도록 지속적으로 항상 문을 열어 놓고 지원할 것이다.



1. 소모임 자원봉사 워크샵
2. 에이드 뉴스 - 벽화 그리기
3. 이야기 보따리 - 어린이, 어르신 대상 인형극
4.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 진로 및 학습 상담

베이비부머 청사진 프로젝트

청소년의 꿈을 그리는 사람책 진로멘토

PROJECT

활자로 보는 책이 아닌 사람이 책이 되어 대화를 통해 소통하고 지혜를 알려주는 신개념 도서관이 있다. 바로 좋은 어른으로서 청소년이 행복한 좋은 어른이 될 수 있도록 경험을 통한 삶의 지혜를 나누어주는 재능나눔 자원봉사 청사진이다.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청소년의 진로 설계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각 학교에서도 관심이 많고 만족도도 높은 봉사활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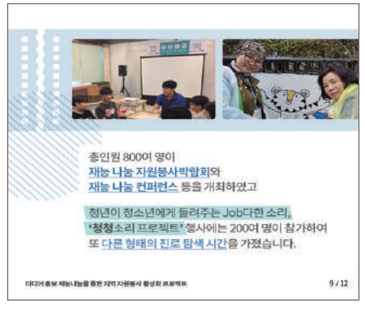
은평구자원봉사센터에서 양성한 진로멘토 30여명은 2016년 관내 20여개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 다양한 직업 경험을 청소년들과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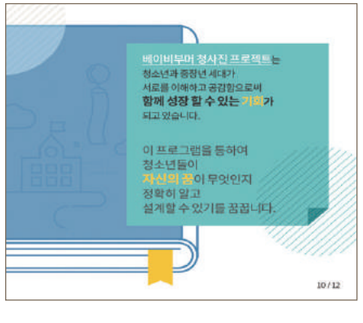
시나리오작가, 음악학원대표, 공연기획자, 홈스테이협동조합대표, 쇼핑몰 운영자, 독서지도사 등 여러 직업군에서 활동 중이신 진로멘토들은 다양한 직업과 삶의 경험을 자신만의 이야기로 풀어 꿈에 대해 고민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훌륭한 멘토의 역할을 담당했다. 진로에 대해 탐색하며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받는 상호 작용은 상호 긍정적 생각을 키우게하는 피그말리온 효과를 보이고 있다.

진로멘토링은 청소년과 중장년층의 세대 통합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마을공동체 안에서 구성원 모두가 함께 건강해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카드로 보는 재능나눔봉사

사람책 진로멘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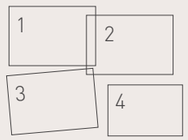
출처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http://v1365.or.kr/)

365일 이어지는
일상의 자원봉사현장

가족봉사단 나눔과 참여의 실천은 가정에서부터!

1. 은평사랑 가족봉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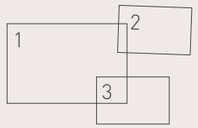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시설 청소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맡아하는 베테랑 봉사단으로
11개팀 70여 가족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1. 데이케어 어르신 발마사지 (사랑팀)
2. 요양원 어르신 얼굴 마사지 (기쁨팀)
3. 장애인 대상 한글 교실 (드림팀)
4. 산타공연 (은평천사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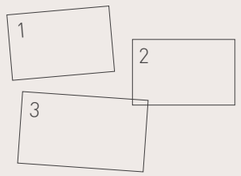
2. 에코플러스 가족봉사단

주말은 가족과 함께 산으로~ 환경사랑과 건강,
가족애까지 챙기는 신생 가족 봉사단으로 생태
교육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다.



1. 이말산팀
2. 앵봉산팀
3. 에코플러스 가족봉사단 발대식

주민 핸즈온(hands-on) 자원봉사
바쁜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다양하고 유연한 프로그램



1. 추석맞이 장애인 성묘 나들이 동행 봉사
2. 천연립밤 만들어 기부하기
3. 점심시간 이용 어르신 손뜨개 목도리 뜨기

365일 이어지는
일상의 자원봉사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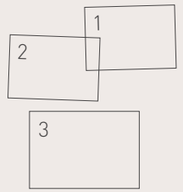
전문봉사단
자원봉사를 통해 전문가로 거듭나는 봉사단

1. 청소년자원봉사코치
청소년 기획봉사의 코칭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봉사단

2. 교육강사단
자원봉사 기본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자원봉사 선생님

3. 공무원봉사단
홀몸어르신 생일잔치
케익 만들고 말벗 봉사

은평자원봉사박람회
다양한 기관, 단체 등이 자원봉사로 주민들과 함께 만나는 소통의 장



1. 청년청단체 - 어린이 환경교육
2. 재미난장 - 페이스페인팅
3. 바자회

자원봉사 원탁토론

행복한 자원봉사자 100인의 이야기

은평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난 2016년 10월 11일 자원봉사가 일궈낸 지역사회의 변화를 고찰하고, 자원봉사 참여의지를 높이고자 자원봉사 원탁토론 〈행복한 자원봉사자, 100인의 이야기〉를 개최하였다.

1부에서는 '은평구 자원봉사가 만들어 낸 변화'와 '체인지 리더! 자원봉사자'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으며, 이어 2부에서는 '변화의 시작 자원봉사 액션', '좋은 시민을 위한 자원봉사 교육', '교복입은 시민, 청소년 자원봉사자의 성장' 등 주제에 따른 모둠별 토론이 진행됐다.

똑똑도서관 김승수 관장님의 진행을 시작으로 이어진 원탁토론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활동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소통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녹번종합사회복지관 오은석 관장은 은평구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가 만들어낸 결실과 뜨거운 열정이 가득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한 시간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할 청사진을 그려 보았다. 갈현1동 이춘희 자원봉사 캠프장은 자원봉사에서 희망을 찾는 자원봉사의 힘과 삶의 변화를 꿈꾸는 우리가 만드는 자원봉사는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한다는 메시지를 남겨주었다. 기획봉사단 그루터기에서 활동하는 진관중학교 2학년 이선재 학생은 진관동에 살고 있는 어린이와 함께 생태 탐험 교실을 운영하면서 겪은 일을 공유하면서, 사람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을 터득하며 스스로 활동을 이끌어가는 성장담을 들려주었다. 이날, 퍼실리테이터로 나선 자원봉사 상담가, 자원봉사 코치단 자원봉사 교육강사단의 도움으로 각 테이블별 주제 토론을 이어갔다.

주제토론

"자원봉사로 나와 나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함께 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어요. 봉사정신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가족봉사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000, 가족봉사단 자원봉사자

"좋은 시민을 위한 자원봉사 교육이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봉사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자원봉사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자원봉사자 상호 교류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및 대상자별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000, 은평구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강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원봉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나아질 것 같아요."

000, 은평구 관내 자원봉사자

이번 원탁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2017년 자원봉사 운영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은평구의 주인으로서 희망찬 지역사회를 만드는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고, 다양한 자원봉사자가 만들어낸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키는 토대 마련에 힘 쓸 예정이다.

청청소리

청년이 청소년에게 들려주는 Job다한 이야기

근래 우리사회의 이슈 중 하나는 '청년 활동'이다. 새로운 발상과 에너지가 가장 활발한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욕구가 지역사회에서 조화롭게 발현되고 실현될 수 있다면 청년과 지역이 함께하는 만족하는 생동감 있는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 질 것이다.

서울혁신파크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많은 청년단체가 있다. 이에 은평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2016년 '지역소모임 활성화 사업' 중 청년 단체 지원을 통해 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나눔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해보길 원했고 그 과정을 통해 새로운 컨텐츠 개발을 하고자 하였다. 몇 개월에 걸친 협의를 통해 여름 방학 중 '청청캠프'를 열었고 지역의 청소년과 청년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 청년청 탐색을 시작으로 45do-lap, 마이리얼짐, 노들유령, 미음, 밝히는 고래 등의 청년 모임이 '득근득근', '피부미인 효자효녀', '식사를 합시다', '바리스타 체험',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같은 이름 다른 모습으로 참신하게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함께한 은평의 청소년과 다문화가정도 새롭고 다양한 체험과 더불어 현재의 청년들의 삶의 모습을 공유하고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은평구자원봉사센터는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며 새로운 시도 또한 지속할 예정이다.

청청소리 참여 후기

청년이 청소년에게 들여주는 Job다한 이야기

'청청소리'는 우연히 참여하게 된 은평구자원봉사센터의 '청사진(청소년 진로멘토)' 봉사활동 참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은평구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사람책'이라는 이름으로 진로시간에 본인의 Job과 살아온 이야기를 통해 청소년에게 진로와 삶의 방향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 해주는 봉사였습니다. 활동을 하다보니 청소년들에게 청년청에 있는 많은 청년 단체들의 활동들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성세대들의 성공스토리도 좋지만 청소년과 나이차가 적은 청년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곧 청년이 될 것이기에,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와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약 10여개의 청년 단체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협업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함께 활동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이 친구들을 믿고 진행을 맡겨도 될까?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동안 해보지 않았던 일이라 좀 두렵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캠프를 시작을 해보니까 본인들의 분야에 대해선 너무나 잘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었죠. 그리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들의 반응 또한 좋았습니다. 심지어 "행복한 시간을 가진 것 같다. 고맙다." 라는 말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한 함께한 청년단체들도 이번 기회에 서로를 좀 더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만 더 기획을 잘하고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실행한다면 시민들에게나 청년들에게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심점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김형준 (밝히는 고래 대표)**

"우선 제가 알지 못했던 일을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서 신기했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된 시간이어서 뜻 깊었습니다."

청청소리 참여자1 - 김예닮

"장애인문화연구소에서 오셔서 이야기를 해 주셨을 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었고 그런 걸 극복하시고 활동을 하신다는게 너무 멋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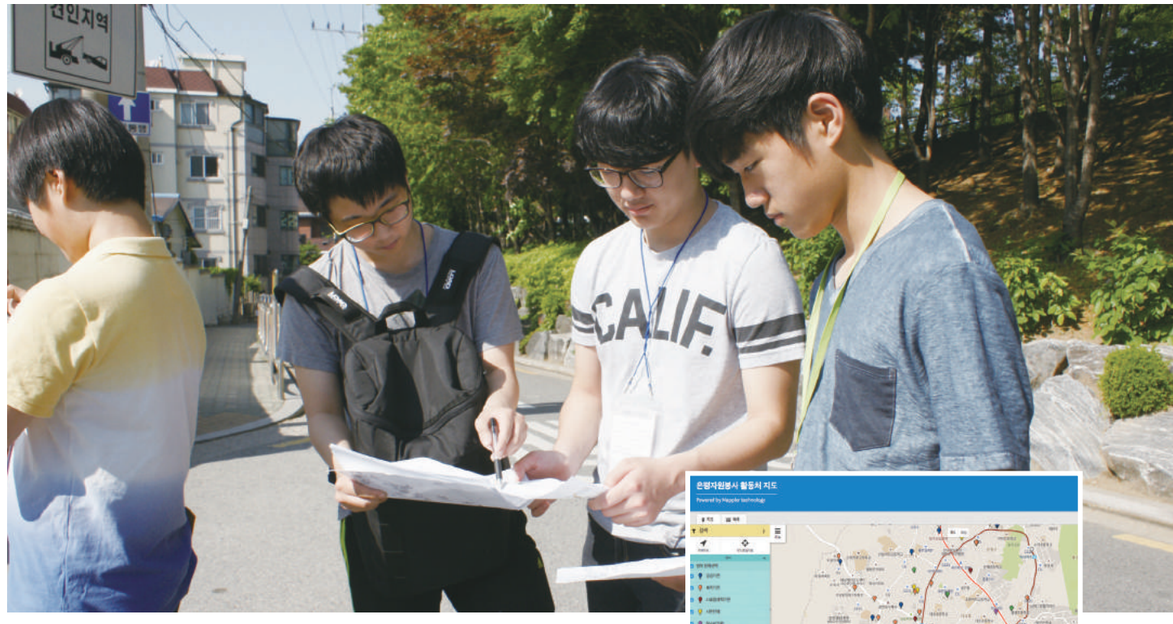
청청소리 참여자2 - 김예진

청소년! 자원봉사의 가치를 새롭게 이해하다!

제2회 1365컨퍼런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보고회

「제2회 1365 청소년 자원봉사 컨퍼런스」가 지난 2016년 10월29일(토) 은평홀에서 열렸다.
이 날 행사는 은평구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봉사단 활동 발표를 통해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과정을 공유하고 진로멘토단의 사람책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미래 설계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보는 것으로 진행 되었다.

모두 5개의 청소년 봉사단의 2016년 활동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와글와글영화제작소' (청소년의 시각으로 자원봉사 스토리를 영상으로 제작) - 『자원봉사 세상을 담다』
'크레파스 봉사단' (다문화가정한글지도 봉사단) - 『한글이 야호, 우리들은 자란다』
'커뮤니티매핑봉사단' (은평구 관내 자원봉사수요처 매핑활동) - 『마을, 매핑, 그리고 나의 꿈』
청소년기획봉사단 '청나무'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청소년이 직접 봉사활동 기획,실천) -『그루터기와 함께한 뜨거웠던 한여름』
은평사랑 가족봉사단(가족단위로 자원봉사 활동) - 『자원봉사와 함께 한 성장일기』
가볍게 시작한 자원봉사가 지속되면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이 스스로에게 미친 영향들과 변화들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은 컨퍼런스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간접 경험을 통한 자원봉사의 가치를 새롭게 이해하게 하였다. 청소년들은 자원봉사를 통해 자신이 아닌 주변인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다양한 관계와 활동이 자기성장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이어졌음을 발표하였다.
봉사단의 발표에 이어 사람책과 함께하는 리빙라이브러리가 이어졌다.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책들이 직업 경험을 통해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다음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다.



청소년정책제안사업
스스로 만드는 자원봉사지도

우리 동네, 학교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자원봉사에 대하여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청소년들의 욕구가 모아져 새롭게 탄생한 지도가 있다!

바로 2016.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유일하게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 채택되어 만들어진 '은평구 자원봉사 활동처 지도'이다. 지난 4월 '우리마을 자원봉사지도 만들기 커뮤니티매핑' 워크숍을 시작으로 50여명의 청소년이 매핑코치와 함께 관내 16개동 자원봉사 활동처를 직접 방문하여 매핑을 하고 기관 담당자와 인터뷰를 하는 등 지도 제작에 참여하였다.
이르게 시작된 5월 무더위를 뚫고 평소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동네 골목골목을 누비며 활동처를 찾아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기관의 성격과 역할, 자원봉사 활동 등에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며 청소년들은 은평마을에 대하여 또 자원봉사에 대하여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커뮤니티매핑 과정은 참여 청소년들이 활동처 정보 수집부터 교통수단과 이동 경로 정하기, 역할 정하기 등 조별 활동을 하며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고 협동을 배우는 체험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은평구 자원봉사 활동처 지도'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자원봉사 활동처에 배부 되었고 은평구청 홈페이지 및 은평구자원봉사센터 블로그에 게시되어 모든 구민이 쉽게 자원봉사활동에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변동사항은 수시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http://www.mapplerk2.com/ep2016